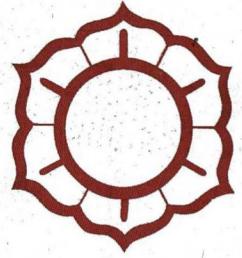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새기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4년
4월 1일
목요일
제54호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극락세계 왕생성불 하소서

총지종 종령 수성 대종사 입적



전국 스승님 및 교도, 사부대중들이 3월 29일 입적한 종령 수성 대종사의 고결식장에서 극락세계에 왕생성불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다.

총지종 종령 수성 대종사가 3월 29일 오후 3시 45분경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입적하여 3월 31일 오전 8시 30분 경북 대병원 발인식장에서 교계관계자 및 내외 귀빈, 전국 스승님과 교도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결식을 봉행하였다.

고결식은 법체운구로 시작하여 대비로자나불전호념, 현화 및 훈한정공, 참화기, 오대서원기, 무상과 독송, 유가삼밀, 행장소개, 장의위원회인 우승 통리원장의 조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고결식이 끝난 후 법체는 대구화장장으로 옮겨져 대비식의 순으로 봉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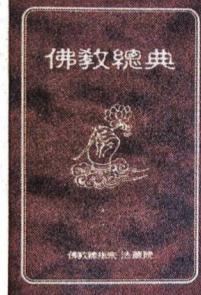
우승 장의위원회는 조사에서 "우리와 함께 중생제도를 위해 영원히 생존하실

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10월 총지종 제8대 종령으로 추대되어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총지종의 종풍을 짐작시켰다.

생전에 수성 대종사는 총지종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종단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며, 원정 대성사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이치와 인과법을 모든 승자 및 교도들이 깨달아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었다.

새롭게 탄생한 『불교총전』

내용수정 및 편집형태 대폭적으로 변화



총지종의 기본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불교총전』이 새롭게 태어났다.

총지종은 기존에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총전』의 내용을

원본과 비교 검증하여 현대적 문법에 맞게 수정했으며 글자의 크기도 확대, 기존의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편집 형태를 대폭적으로 개편, 교도들이 읽기 쉽게 변화시켜 출판함으로써 경전으로서 가치를 더욱 고취시켰다.

『불교총전』은 창종 당시 중생교화를 위하여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직접 편찬하신 설법교전으로 밀교와 현교의 각

총지종 제63회 춘계 강공회

종단운영 방향과 정책개발



총지종 전 스승님들이 강공회에 참석하여 종단의 현황을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교세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총지종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스승님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춘계강공회를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하여 종단의 운영방향과 현황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개발

및 교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더불어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강공회는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각각 개최

하여 종단의 현황문제를 조명하여 개선하고, 종무행정의 활성화와 교세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안 문제를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에서는 우승 통리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 종단의 운영에 있어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시험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승 통리원장은 춘계 강공회 개최를 앞두고 "종단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단의 운영과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화합을 위해 집착과 분별심을 버리고 원용의 자세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종단의 운영은 통리원과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승단과 교도들이 상호 협력하는 적극적인 동참과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며, 현 집행부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며 견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언해 줄 것과 서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중생의 악업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으로 어려울 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선업을 지어 내생에서 업장소멸을 위해 용맹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죽비소리

대체 모든 부처님이 적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오랜 세월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때문이요 수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맷도는 것은 한없는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때문일세

막지 않는 저 천당에 가는 사람 적은 것은 삼독심과 번뇌를 나의 집 재물로 삼기 때문이요 꾀임 없는 저 악도에 많은 사람 가는 것은 네 마리 뱃과 오육으로 땅심의 보물을 삼기 때문일세

『발심수행장』중에서

총지종 정사 정복 교체

황토색 개량한복으로 정체성 확립

총지종은 1년여의 연구와 검토의 결실로 정시들의 정복을 양복에서 황토색 개량한복으로 교체하였다.

정복은 공식불공시 자색 법의 속에 입고, 일상생활 시 수의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정사를 종일 부는 앙복을, 일부는 검은 색 개량한복을 수의하여 정복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황토색 계열의 개량한

복으로 교체하게 되었다.

이 정복은 이번 춘계 강공회에 승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사항과 차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후 공식적으로 수의할 예정이다

한편 총지종의 정시들은 정복의 통일성을 기함으로 인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교의 활성화를 모색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63회 춘계강공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과 종단의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홍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 33년 4월 20일(화) ~ 총기 33년 4월 23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사설

신임통리원장에 바란다

법공 전 통리원장이 1년여라는 잔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통리원장을 수행하고 승단의 결정에 의해 통리원장을 재수락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수행에 만전히 하겠다는 본인의 고사로 지난 2월 말에 다시 승단총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통리원장이 선출되었다.

승단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번에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우승종사는 행정경험은 일천하나 승단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폭넓은 도량과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인물로서 자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단을 바로잡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승단의 대화합을 종단발전의 대전제로 삼고 이에 노력하고 있는 신임 우승 통리원장에 대해 종단 안팎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유언로 인하여 역대 통리원장들이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하차가 많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금월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우승 통리원장은 이 점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행과 교회를 습직자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본 종단은 타 종단과 달리 직책에 대한 감투싸움 같은 것은 일절 찾아볼 수 없으나 반면 행적적으로 종단을 이끌려는 사람이 없어 도리어 이로 인한 폐단이 컸다. 우선 통리원장의 임기가 3년에 불과한데다 적임자들의 고사가 잇따라 통리원장 선임 때마다 많은 진통을 겪어왔다. 타 종단은 한 사람이나 장기간에 걸쳐 조직을 영도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종책을 펼칠 수도 있었으나 우리 종단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약점을 드러내었다.

이번에 선출된 우승 통리원장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임기를 완료하여 종단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틀을 쌓아야 하리라고 본다. 또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종단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종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승통리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통리원장 본인의 철학과 같이 전 승단이 학합·단결하고 또 그러한 힘을 결집하여 종단의 방침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자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 종단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용기를 가지고 소신 있는 종책을 펼쳐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신임통리원장에게 기대해 본다.

종단발전은 대화합이 전제

인사문제와 종령의 안위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승단 안팎이 뒤틀어진 가운데 우승종사는 지난 2월에 통리원장에 선출되어 훌륭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임식은 이번 강공회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나 종단의 급박한 사정상 업무 복귀를 미룰 수 없어 곧바로 현직에 투입되어 업무를 파악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학급한 일은 연초에 단행된 인사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이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신임통리원장도 표방하고 있듯이 화합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과업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며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소한 오해로 확대되어진 인사문제가 승단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데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대화합으로써 각자의 잘못을 크게 참회하고 반성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행여나 이 과정에서 나만의 이익과 모종의 계산에 의하여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대화합의 전제 아래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로써 풀어나가되 이로 인해 앞으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화합으로써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종단은 한층 더 성숙해 질 것이다.

어르신들과 함께 한 복지실현

우승통리원장 노인복지센터 방문

지난 달 승단총회에서 총지종 제14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우승 통리원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한 복지 실현과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4월 19일 비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다.

이날 우승 통리원장은 시정 재무부장과 동행하여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조영표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불편한 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식당에서 점심공연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원봉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불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보살피며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우주의 삶과 삶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비의 종교입니다. 항상 자비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나의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이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모셔야 하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리고 “복지센터는 각

가정에서처럼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복지센터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항상 어르신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어르신들에게 말하였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한 종무수행

우승 통리원장 종정자문위원회의 주최



◆종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우승 통리원장이 종단의 원로스승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은 3월 24일 오후 2시 종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종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승 통리원장 선임 후 최초로 개최한 종정자문위원회에서는 종무행정의 방향, 종단 현안의 문제점, 인사 등 주요정책사업 등을 논의하였고 다양한 의견과 더불어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종정자문위원회는 종단의 원로 스

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정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다.

알림방

- ▣ 총지종 종령 수성대종사께서 3월 29일 입적함
- ▣ 제63회 춘계강공회를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함
- ▣ 4월 8일 상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함
- ▣ 재무부장에 시정, 시무국장에 법경 정사를 임명함

2004년 2월 26일부터 2004년 3월 25일까지

개천사

특별 대담 우승 신임 통리원장에게 듣는다

종단 화합과 단결로 새로운 도약 다짐

▶ 어려운 종단 상황에서 통리원장으로 선출되어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부담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단의 많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종무행정을 어떻게 꾸려가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의 중책을 맡아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책을 맡은 이상 소임을 다할 생각이며, 산적해 있는 종책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은 '인사처리문제'입니다. 어떻게 매듭짓느냐 하는 것이 첫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묘언을 찾을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종책사업은 업무파악이 끝나는 대로 방향을 결정해서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선후를 정하여 진행할 것이며, 최우선 과제는 화합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무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 총지총은 다른 종단과 비교하여 승직자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어 젊은 도제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근래 젊은 세대의 승직자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제양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젊은 도제를 양성할 수 있는 대책안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우선, 현직에 계시는 스승님들의 연령과 장년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인력수급을 연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채용에서부터 교육,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시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어 교육전반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무교육과 협직발령후의 보수교육, 적성에 맞는 직무의 보직 등 종단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에는 교회스승 양성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스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스승은 말할 것도 없고, 연구전문가, 문화사업 전담스승, 대사회복지사업전담스승, 청소년포교전담스승, 종립학교전담스승, 수행도량전담스승, 종무행정전담스승 등으로 나누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양성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과감한 투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각 시원에서는 교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단의 모든 행정과 연구가 사원의 교회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사원교하는 사원에만 국한되고, 행정업무는 오로지 행정기관에만, 연구는 연구기관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구슬도 끼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관의 업무들이 하나로 회통되고 아우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대책을 찾는 데 전념할 생각입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교회방법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면 교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시대와 교도들의 신행변화에 맞는 교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스승과 교도간의 유대를 돋우시기 위해 승단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사람도 자연히 멀어집니다. 교도를 끌어안고 희생하는 정신자세를 승직자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문제이지 도제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관계 다음에 도제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종단과 비교하여 활동이 저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할 방향이 있으신지요?

우리 종단의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무상한 계획들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

는 사업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재단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분석하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 종단사정을 감안하여 착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구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통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진적인 의미로써 본산 총지사에만 봉안키로 결정하였고, 전국 사원으로 확대한다는 종단방침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원에서 봉안을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종단방침이 서기 전에는 삼가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다라와 불단 장엄문제는 승단의 중지를 모으고 마지막으로 종령님의 최종 결정은 후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의 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벽이 있다면 제가 먼저 허물겠습니다. 질타와 충고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대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맞는 업무처리가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순입니다.

종무 결정에 있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결정에 따라주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누가 이 중책을 맡아도

소임을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참고할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대화로써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할 생각입니다.

▶ 현재, 일부에서 불사의식의 변화와 불구(佛具) 사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사용해야겠지요. 이 문제도 승단과 교도들의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실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화합과 단결, 서로간에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불사의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임 통리원장께서 종단 승직자들의 의견수렴과 종무정책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종헌종법위원회' 등 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9개 분과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문제도 앞에서 언급한 복지재단과 같이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욕적으로 펼쳐온 분과위원회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많이 들을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종단의 화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마음의 빗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승단과 교도들은 사적인 이익은 버리고, 종단의 발전을 위해 혼신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님은 스승님 다운 마음그릇, 교도는 교도다운 수행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은 내허물의 그림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승단 전체가 합심하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대답 : 화령/법장원 연구원

* 정리 : 김용주/총지총보사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교회방편 마련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

다리를 봉안하고 불단을 장엄하는 문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다라를 종단의 교상과 사상으로 채택한 것은 이미 원정 종조님 재세시 때부터였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본존과 함께 양부만다라를 좌우에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교상과 사상에 어긋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반하신 육종종령님께서 종조 원정님의 법설을 헤아린 한국불교 최초로 양부 만다라를 봉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대원칙이 상

많은 어려움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서 잘 이끌어 가라고 저를 통리원장이라는 중책에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중지를 모으고 대화로써 모든 일을 처리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승단 스승님의 수행력과 마음그릇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서로

터득할 수 있는 길이다.

그 해답은 우선 자기 스스로 부단한 노력과 거듭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항상 진언을 놓지 않고 묵송(默誦) 하는 것이다. 길을 갈 때도 '옴마니 반마ه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옴마니 반마هム', 일을 할 때도 진언연송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조금씩 수행자 다운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들떠 있구나!' '마음이 상해있구나' '지금 내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알았을 때, 조금은 수행에 진전이 있게

된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지나간 업장을 소멸하고 과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언의 항송(恒誦)은 바로 이런 점에서 더욱 요구되는 수행방편이다. 오늘부터 진언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려보자.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본디 중생이란 의지가 박약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쉬이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묵송을 행할 수 있는지 나를 점검해보자. 나의 수행정도를 기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수행은 부단한 자기노력의 과정이다.

(법경/법장원 연구원·사무국장)

자기근기에 맞는 수행법과 불공법 개발 필요

진언 공덕은 진언을 놓지 않고 묵송하는데 있다

로 선택하므로써 양질의 수행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원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도들에게 수행을 집중하여 효과를 더 높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즉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스스로 개발하여

四十九齋案內

종령 수성 대종사의 사십구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제	일 시
1제	4월 4일 (음력 2월 15일) 14시
2제	4월 11일 (음력 2월 22일) 14시
3제	4월 18일 (음력 2월 29일) 14시
4제	4월 25일 (음력 3월 7일) 14시
5제	5월 2일 (음력 3월 14일) 14시
6제	5월 9일 (음력 3월 21일) 14시
7제	5월 16일 (음력 3월 28일) 14시

◆ 각 사원별로 49재를 봉행함.

◆ 문의 : 불교총지총 통리원 전화 02) 552-1080~1083

감사의 말씀

佛教總指宗宗領修成大宗師께서 總紀 33年(佛紀 2548年) 3月 29日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入寂하시어 3月 31일 경북대병원 발인식장에서 告訖式을 교계 관계자 및 내외 귀빈,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總指宗宗團葬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심정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자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한 텐중이므로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紀 33年 4月

佛教總指宗葬儀委員長愚勝합장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⑫

변지원(遍知院)의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

지난 호까지 중대팔업원의 사여래(四如來), 사보살(四菩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변지원의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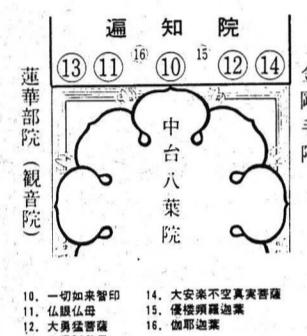
중대팔업원은 태장계만다라의 중심으로 깨달음을 나타낸다. 깨달음과 그 인위(因位)의 제불보살(諸佛菩薩)들이 중앙의 대일여래, 동방의 보당여래, 남방의 개부회왕여래, 서방의 무량수여래, 북방의 천관여래, 그리고 이들 사여래(四如來) 사이에 있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자보살, 미륵보살이다.

이 중대팔업원의 위쪽이 오늘부터 살펴 보고자 하는 변지원(遍知院)이다.

이 변지원은 중앙에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 좌우에 각각 불안불모(佛眼佛母),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 대용맹보살(大勇猛菩薩), 대안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真實菩薩), 그 사이에 우루빈라가업(優樓頻羅迦葉), 가야가업(迦耶迦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지혜(智慧)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변지원은 중대팔업원을 둘



있다. 바깥의 불꽃(화염)은 세겹으로 되어 있다. 그 바깥에는 둑근 원으로 둘러져 있다.

삼각형 주위에 불이 타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불은 어떤 것을 태우고 부정(不淨)한 것을 없애는 것으로, 중생의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태워 버리고 수행자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여래의 지혜'로 상징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항복(降伏), 제장(除障)에 비유된다.

바탕의 순백색(純白色)은 대자비(大慈悲)를 나타낸다. 따라서 순백색의 삼각형 안쪽 부분을 붉게 채색하고 있다. 삼각형 안쪽과 꼭대기에는 '만' 자가 새겨져 있다.

'만'자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길상(吉祥)으로 여겨졌다. 꼭대기의 '만'자는 석존이 사마(四魔)를 항복시키고 정각(正覺)을 성취한 것을 나타낸다. 안쪽의 '만'자는 오고저(五·忤)로서 본유(本有)의 보리심(菩提心)을 가리킨다. 삼각형이 세 겹으로 그려진 것은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지혜를 타나낸다.

세겹으로 된 화염(火焰)은 삼독(三毒)을 태워 제거함을 나타낸다. 삼독 또한 본래는 청정하며 보리와는 불이(不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레의 두개의 원은 지혜로부터 생기는 자(慈)와 비(悲)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빛과 불로써 표현되므로 일체여래지인의 밀호(密號)

변지원은 대일여래가 갖고 있는 지혜의 덕 중생의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태워 버림

려싸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쪽의 원(院)으로 동방(상단)에 위치한다. 변지원은 대일여래가 갖고 있는 지혜의 덕을 나타낸다. 변지(遍知)란 '널리 아는 지혜', 즉 '일체지(一切智)'를 의미한다.

지혜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부처를 탄생케 하기에, 모든 부처의 어머니에 비유된다. 그래서 이 변지원을 불모원(佛母院)이라고 한다. 가장 가운데 것이 '일체여래지인'이다. 대부분의 존상들이 신상(身像)으로 표현되고 있는 데 비해 일체여래지인은 특이하게 삼매야형(三昧耶形)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체여래지인은 그림과 같이 삼각형 안에는 '만'자가 새겨져 있고, 순백색의 삼각형 바깥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연꽃 위에 이 삼각형이 올려져 있다. 삼각형은 세겹으로 그려져

있는데, '발생금강(發生金剛)'이라 한다. 삼매야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삼각지인(三角智印)이다. 존형(尊形)은 앞의 설명을 재인하자면 백색광(白色光)으로서 둑근 원 안에 순백(純白)의 삼각인(三角印)이 있고 보련화(寶蓮華) 위에 놓여 있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으로 표현된다.

이 일체여래지인의 진언은 '나마 사만다 보다남 사리바 보다 보디 사트바 기리다야 니야베니사나 나마 사리바비다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제불보살의 심중(心中)에 스며 들어가는 분이여! 일체지자에게 귀의합니다.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아제 아제 바라아제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는…

불교계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몇 년 만에 모처럼 모여 강원도로 워크샵을 가는 날이었다. 오후3시에 출발할 예정이어서, 나는 오전 내내 정신없이 그 날의 일을 서둘러 처리하기에 바빴다. 사무실 식구들과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분위기가 어찌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 TV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국회위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보였다. 밥을 먹는 건지 아닌지, 자꾸 자꾸 한숨이 나왔다. 동료 중 누군가가 '워크샵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을 했지만, 머릿속은 심한 충격으로 텅 빈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다.

워크샵의 컨셉은 '2010 희망찾기'였다. 지금부터 노력하여 2010년에는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 일 것이다. 근데, 이대로라면 2010년의 우리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활동가들의 오랜만의 나들이는 가는 첫 속에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를 넣고 있는 것 같아 그리 즐겁지만은 못하였다.

집으로 귀가한 날 저녁, 나는 인터넷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모니터하였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야 대통령 탄핵이겠지만, 자꾸만 멀어지는 지 지울하락 속에서

4.15총선을 연기시

키고 고건총리로 유야무야 흘러가다가 결국은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국을 몰아가는 것일 것이다.'라고 정리하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정말 분노스러웠다. '그나마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온 민주주의……'

사실, 나는 지난 대선 때 정몽준의 지지철회와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었다. 그렇다고 노대통령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게다가, 취임이후 그는 나의 정치적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미움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과법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국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좌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대외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럴수록 올바른 정당선택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동시에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혼란한 정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새삼 느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동료들과 잠시 토론을 하였는데, '서로의 정치적 입장은 약간씩 달랐지만 국민적 합의제도인 총선만큼은 절대 연

기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였다. 퇴근 후 나는 촛불시위행사에 참석하였다. 혼자 한 터라, 노래도 잘 따라 못하고 조금은 수동적이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다음날도 나는 시위에 참석하였다. 평일이라 사람들이 적을까봐 걱정되어서 과ogn한 몸을 달래며 간 것이다. 귀가시간이 늦어지자, 남편은 '이 나라 자네 혼자 지키는가?'하고 웃으며 농을 쳤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닿는 데로 가야지 어찌하라' 싶어, 더 열심히 갔다. 큰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내 양심에 따른 나의 민주주의 실현방식인 것이다.

지난 토요일 저녁, 시청 앞의 친란한 20만개의 불꽃들을 벽차게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도 선거 때만 되면 늘 불신했던 내나라 동포들에게 희망을 거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다.

최대의 사회적 이슈인 탄핵상황과 관련하여, 불교계에서 일하는 한

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분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대두될 때 그것 을 "불교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 일까."라고 하시며, '지금의 탄핵 상황을 불교적으로 본다면, 중도, 연기, 무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도는 올바른 길과 그 길을 아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들을 모든 관계성의 결과로 또한 다른 것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연기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미 너와 내가 없는 심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무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짧은 알음일이지만, '올바른 길과 그 길을 아는 것' '독재의 시퍼런 칼날 속에서도 몇 십만 동안 쉼 없이 전진해온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관심' '나는 알고 선한의지민이 있는 촛불시위'를 나는 불교적 관점과 연결시켜보았다. 부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진리파지의 영역에서 제일먼저 바른 이해(정견)를 강조하시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일상적인 세속의 삶을 살아가다 역사적 소용돌이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시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이해에 근거한 바른 행동(정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생각이 될까? 아닐 것이다. 사실, 세속(역사)에서의 정의는 늘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선택의 곤란함을 피할 수는 없으니, 오직 바른 이해만이 우리를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김선미/인드리생명공동체 총무국장〉

모든 일은 중도, 연기, 무아의 관점에서 보아야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에 근거한 바른 행동



이달의 명상

계행은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수행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계행을 지키면서 수행한다 하여도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지혜는 눈(目)과 같고 행은 발(足)과 같은 것 이어서 눈과 발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지혜있는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은 가야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밝

지혜는 눈, 행은 발

더라도 가야할 곳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보배가 있는 곳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바와 다를 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발이 아무리 튼튼하여 어디든지 열심히 잘 갈 수 있다 하여도 눈이 어두우면 가야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원효스님의 말씀처럼 동쪽으로 가는 줄 알고 가지만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을 찾아

간다는 것이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갈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행은 눈과 발의 관계와 같고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여 행에 소홀해서는 안되고, 지혜없이 열심히 닦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편집자 주〉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봅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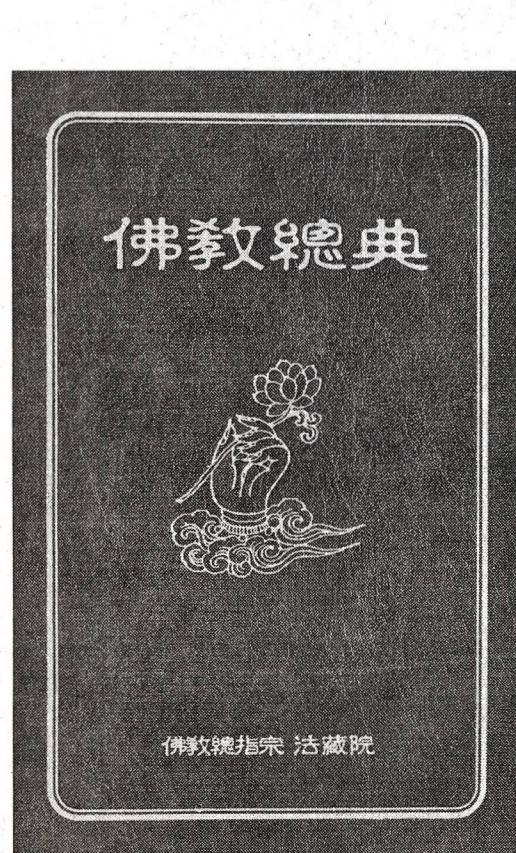
주요 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 논단

실천 공부 ⑨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청중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종 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스승과 신교도

법계 진각님은 어느 때라도 중생도 하기 위해서 항상 법계의 강령(綱領)을 세우고 계시므로 누구라도 진리를 성취하여 인법(印法)을 세워 오는 자면 법계 진각님은 전체를 위해 주실 뿐 아니라 천기와 상징으로 하여금 백천만첩으로 거듭 둘러싸고 도우게 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스승의 도가 무너지고 없어진 이때에 우리 보살회에서 직분과 스승 지향을 세워가는 인법을 세우고 실천하여 가는 것을 참으로 법계 진각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계율은 사부(四部)와 칠중(七衆)들

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든 것이요 십중계(十重戒)로부터 사십팔 이백오십 삼백사십팔 오백계를 다 중생이 소임으로 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요 칠중은 각각 자기에게 합당한 계율을 직무적으로 행해서 중생에게 반영할 법계의 소임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알아야 하고 중생은 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짓고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행하게 될 만한 법을 근기에 병해서 설할 뿐이니라. 우리 보살회에서 이 법이 서게되면 실천화도(實踐化導)하는 스승은 지위가 높아지고 실천화도하지 못하는 스승은 지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스승의 실천화도가 많은 심인당(心印堂)은 신교도(信教徒)의 가정에 빼치어 가는 행복이 많고 실천화도가 적은 심인당은 신교도의 가정에 빼치어 가는 행복이 적으니라. 법계 진각님께서 아무리 중생을 제도할 본각(本覺)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중생으로부터 시각(始覺)하여 진숙(眞俗)을 통하고 법을 세워오는 자가 없으면 진각님도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의 화도(化導)하는 법을 세우지 못할 것이요, 또 법이 없으면 보살회가 서지 못하고 보살회가 없으면 실천하는 스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실천화도하는 스승이 없으면 신교도가 누구를 인연해서 모여들며 무엇으로

주어서 깨닫게 되리요. 그러므로 스승의 자격과 실천법을 세우지 않으면 보살회가 서지 못하고, 실천법과 스승 자격은 세워졌는데 화도스승을 주(主)로 하여 세워가지 않으면 교화(教化)가 잘 되기 어려운 깊이다.

신교도가 악업을 참회하고 이웃 사회를 정화하는 데 까지 스승이 화도할 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신교도 가정에 원만한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고 스승된 자신이 알고 항상 참회하여야 한다.

다 종교법과 계율을 실행케 한다는 것은 불능한 법이요 각자 종교에 의거하고 있는 스승을 다 실천케 한다는 것은 가능한 법인 깊이다. 그러므로 교화하는 법계의 조직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교를 비방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면 그 교가 쇠퇴할 것이요 그 교가 왕성하게 된다면 비방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는 타락한 데 돌아가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교와 스승을 찬성하는 데 행복하고 교와 스승을 비방하는 데 교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와 스승을 비방하는 사람만 복이 없느니라. 더욱 현세를 행복하게 하는 교를 비방하고 스승을 질투하게 되면 현세부터 곧 그 과보를 받게 되며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나니라.

는 법계의 교화방편이 되느니라.

성현을 숭배하고 성현의 말씀을 찬성하여 교가 왕성하게 되면 찬성하는 사람도 왕성하게 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감화가 되느니라.

마련해 두신 깊이다. 그러므로 화(禍)와 복(福)을 내가 지어 살고 가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보살회의 승으로 천거하게 되느니라.

종교의 지도자되는 자는 법계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공도(公道)를 실천화도(實踐化導)하는 데 국가 공직의 지도자도 따라서 자연 공직을 세우고 법률을 실천수법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 공직의 지도자가 공직을 세우고 법률을 실천수법하는 데 어리석은 국민이 못나서 여간 우를 범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연 공무(公務)가 균등하고 사(私)에 기울이지 않게 되므로 질서없는 데 까지 이르지 않게 되느니라. 법계의 진리가 이와 같으니 어찌 종교의 지도자 책임이 중하지 않겠느냐.

진리로 화도하는 스승이 되어서 부모가 본심으로 실천한 결과가 자손에게 미친과 같이(법계에 내증한 심인이 스승을 찬성하여) 무언 중에 화도(化導)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신교도가 스승의 허물로 나타난 불행을 보게 되면 조소하고 비방하는 재앙은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같은 이치를 알고서 어찌 화도자(化導者)가 될 스승과 해인행(海印行)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리요. 우리 교가 지난 일은 돌아볼지라도 창설 당시에는 진리를 좋아하고 일기만 하여도 스승으

로 채용한 깊이에 신교도의 동요와 그 불안개한 것은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사회의 비방을 받던 일이 가끔 있지 않았든가.

이제는 별써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지도자는 해인행으로써 육행을 교화할 수 없으면 화도스승이 될 자격이 없느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실천화도하는 스승은 지위가 높아지고 못하는 스승은 지위가 낮아짐 스승되는 자는 법계 안에서 실천화도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야함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삼천만을 다 진각님이 설하신 수백 계율을 지니게 한다는 것은 안되는 법이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는 스승과 화도자(化導者)를 실천케 한다는 것은 되는 법인 깊이며 전세계의 이십억을

사람으로서 실천케 하고 믿는 사람보다 화도자(化導者) 스승으로서 실천케 하고 화도하는 스승보다 법계 하나 진각님은 절대적 자비와 지혜와 선권(善權)을 가졌으므로 억만 중생을 교화하는데 근본이 되어서 일은 적게하고 공은 배가 되

있는 것은 교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다. 교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物)에 대한 본말과 사(事)에 대한 선후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없이 아는 법으로써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 교문에서 스승되지 못하게 법계 진각님께서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대기가 건조하고 황사와 풋가루 등으로 피부의 손상과 건조가 심해지고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고 악해지는 시기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한방팩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조팩 : 30 이후의 피부에 효과적. 보습과 미백효과가 뛰어남. 해조가루에 오이즙, 요구르트 등을 섞어 사용.

* 녹차팩 : 기미, 주근깨피부에 효과적이며 피부에 윤기를 준다. 녹차물을 우려내어 약간 식힌 후 거즈에 묻혀 팩을 한다.

* 김초팩 : 알레르기와 민감성피부에 효과적. 김초 다린물에 달걀흰자나 우유 등을 함께 개어 팩을 한다.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한방피부미용

미용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요즘처럼 사람의 내면적인 도움보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개인의 기질과 능력을 결정해 버리는 시대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아름다운용모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짚어보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방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음식뿐 아니라 실제 매일 여성들이 접하게 되는 화장품에도 한약재를 이용한 순수미용용품이 발달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몸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거울이라고 본다. 즉 피부는

피부는 몸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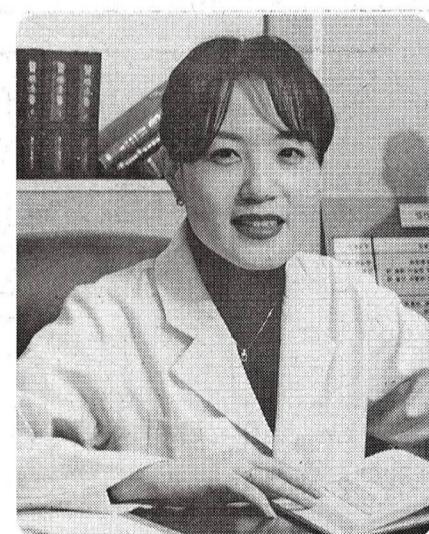
인체의 어혈과 담음 등을 배출시키는 치료

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유지하게 된다.

즉 피부가 나빠지면 우리 몸의 어떤

면 체액은 전신을 순환하므로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이상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체액을 타하게 하는 주요원인은 불규칙

진한 화장과 화려한 악세서리로 몸을 치장하기보다 평소 조금만 피부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진정한 건강미인



생활액 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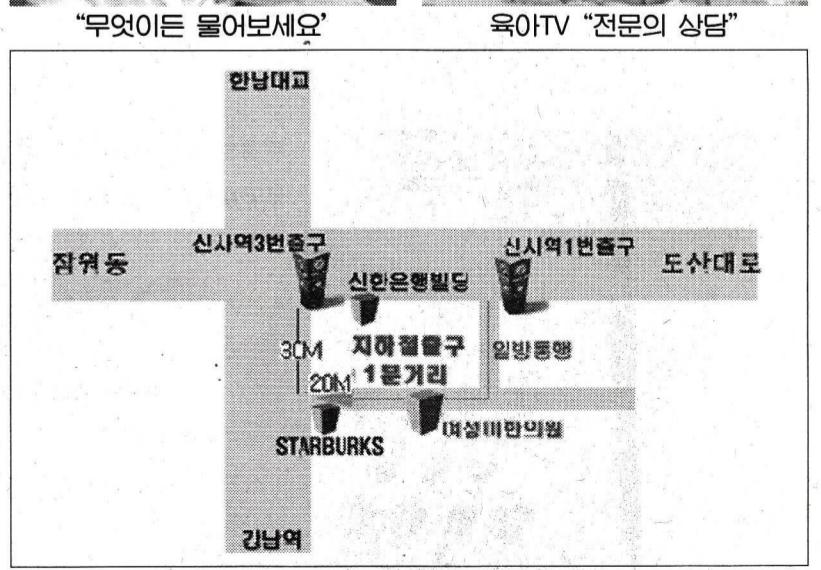
자동 팔강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작동육기



풍경소리

복(福)이란

어는 장자의 집에 손님으로 간 바라문은 닭장에서 눈길을 뗄 수 없습니다.

그 택의 복이 바로 닭벼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수탉을 제게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제자들이 이 시간에 맞추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암 드리고 말고요!”

그런데 복이 지팡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장자님, 몸이 좀 불편하니 지팡이를 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장자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복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 복이란 스스로 짓는 것이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바라문의 탄식이었습니다.

맹란자/수필가

불건에 대한 대접

우전왕의 왕비는 5백벌의 가사를 아닌 존자에게 보시했습니다.

왕이 아닌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옷을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 스님들께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입던 현 옷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스님들의 현 옷으로는 이불 덮개를 만들겠습니다.”

“현 이불 덮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 이불 덮개는 배갯잇을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왕의 질문은 계속 되었지만 존자의 대답은 막힘 이 없었습니다.

“현 배갯잇으로는 방석을 만들고, 현 방서은 발수

안으로 깊이지는 것들

글짜기의 물은 몸 낮추어 아래로 흐르면서 강물과 하나 되어 바다로 흘러들고 안으로 더욱 깊어져 소리 없이 흐릅니다.

잎새들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겨울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위해 낙엽을 밟아래 묵혀 두고 안으로 단단한 속살을 채워갑니다.

멀고 험한 길을 달려 온 사람은 아픈 고난의 시간 위에 스스로 뿌리를 내려 안으로 겪어야 할 깊은 나무 한그루 키워 갑니다.

문운정/수필가

뒷하리

한 고승이 생선 가게 앞을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음... 저 생선 참 맛있겠다.”
옆을 따르던 어린 제자가 듣고 절 입구에 이르자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스님이 해도 됩니까?”
그러자 고승은 조용히 꾸짖었습니다.
“아뇨아, 뒷하리 그 생선을 여기까지 들고 왔느냐?
난 벌써 그 자리에서 버리고 왔다.”

맹란자/수필가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밀교 ~반야심경편 제 27화~

글.그림/정수일

이런..
아까운 mp3는
왜 때려
부숴요.

힝...
할부도 아직 덜
끝났는데...

나에게나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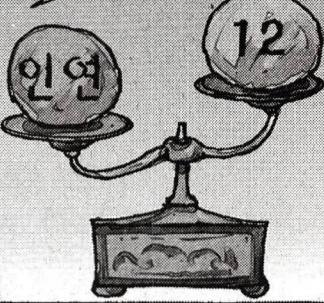
무명이란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무한히
계속되어온 알지 못할 어둠...

아아.. 나는
누구인가?

그 무명 속에서
괴로워 하며 헤매는
혼이 있다.

12인연이란 무명이 원인이
되어 그로부터 모든 인연
따라 노사에 까지 이르는
결과를 열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눠 설명한 것이며...

12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연이라는
두 글자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아..
답답해!

생명현상의 원동력인
그 혼은 무명 즉 어둠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다.

중생들의
생활상으로
비춰
본다면
...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계속된 “나”
라는 존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운회를 반복하며 아버지의
몸 속에 들어있죠.

부모의 사랑으로
인하여 무명에서 헤매
이던 “나”라는 존재는
무명을 벗어나 새
생명의 씨앗으로
어머니의 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빛!
밝은 빛을
보고 싶다.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각자님의
눈을 한번
가려볼게요.

헉!

헉!

아이고!
답답해.
밝은 빛이
보고
싶어.

하학..
그것 보세요.
어둡고 답답하죠?
아주 쉬운 예로
금방 그런 것이
무명이랍니다.

그리고 어둠을
벗어나고자
했던 각자님의
마음이 제 손을
치운 행을
한구요.

“무명”과 “행”을
합쳐 과거세의
두 가지 원인
이라고 한답니다.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들었더니
갑자기
배가..

대성사님 먹고
하는 게 어때요?
마침 저기 닭집이
있군요.

하여튼 각자님은
먹는 것 밖에
모르는군요.

헤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의 상생정신으로 정치를 한다면...

최근에 현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온 나라는 혼란과 국민의 민생안정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광경, ‘나는 나요, 너는 너’라는 분별심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며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생각을 해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물에는 불성이 있으며, 거리에 피어나는 풀 한포기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서로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중생들에게 상생의 정신을 지각시켜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역자사지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화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신으로 정치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릴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안고 서로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김철중〉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lyja@hanmail.net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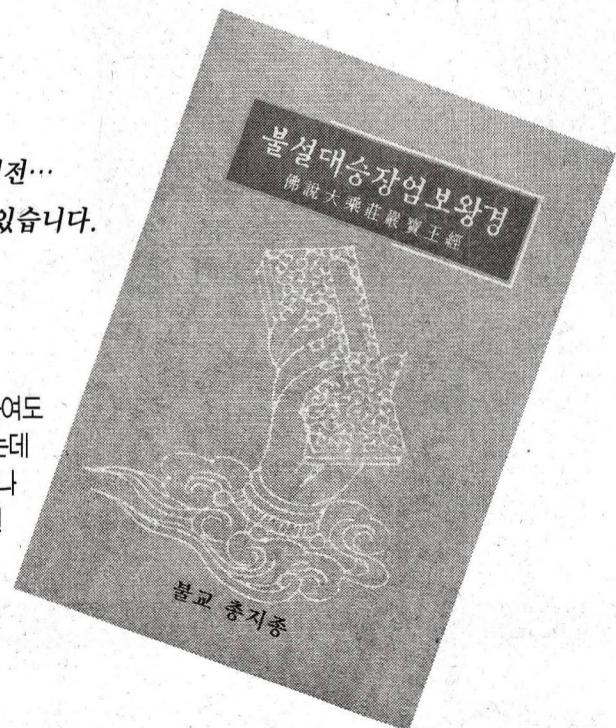
『불설 대승장엄 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매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인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푸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경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사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서울

역삼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의 문을 들어서니 강남지역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땀방울 속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은누리에 가득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지만 얼굴에는 짜증스럽거나 힘든 표정없이 항상 밝은 미소로 웃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방긋 웃고 있는 모습처럼 마냥 아름답게만 보였고, 이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재롱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얼굴에 드리워진 주름살을 활짝 펴게 하였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세상, 부처님의 천당이요, 극락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바로 부처님의 세계인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 본다.



작은 수고, 큰 기쁨

“아침부터 하염없이 비는 내렸다. 풍요롭다는 가을에 그리고 긴 여름때문인지…,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과 행복함을 나누어 드리고자 한뜻으로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가위 음식나누기 준비를 위해 밤걸음을 옮겼다. 점심도시락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어르신들을 만나 볼 시간이 다가왔으며 그 리도 모자라는 것이 많은지 이것저것 아쉬운 것 뿐이었다.

3층에 올라가 어르신들을 만나 볼 순간 예쁘게 단장하시고 다소곳하게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얼굴에는 원인모를 하얀 미소로 가득하였다. 간단한 행사가 진행되는 순간 내손은



꼬~옥 잡으신 할머니께서 한마디를 내게 전하셨다. ‘우리 이쁜 아가씨들 고마워…’ 할머니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고마워하시며 내손을 놓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난 안다. 함께 해줌이 고마우셨던 것이다. 물지 않고 오로 하고자 하는 일 밖은 표정으로 해야지 했던 내 마음가짐이 할머니에게 아련함을 전하신 것이다. 내 가슴과 온몸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잠깐 우리와 함께 있음이 좋으신 분들에게 눈물은 약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좀 더 웃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뜨겁게 안아 줄 수 있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 올 때는 가벼우리라 생각했던 밤걸음이 무건운 건 비오는 날 받으신 도시락과 선물을 들고 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어서일 것이다. 복지관에서 배달하여 준다는



테이프 할아버님을 아시나요?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어르신들 중 특히 생각나는 몇 분이 계십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유모차에 페지를 모으러 다니시는 할머니, 이곳저곳 소이거리 하러 다니시는 할아버지, 백화점 앞에서 떡을 파시는 할머니 등등….” 그 중에서도 유독 생각나는 어르신은 비나 눈이 오지 않는 한 음악 테이프를 팔고 다니시는 70세가 훌쩍 넘으신 할아버지님이시다. 이 할아버님을 처음 뵙은 것은 지난해 9월 말쯤이었다.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와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할아버지의 방안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뿐옇게 먼지가 쌓인 그릇들과 창문이 없어 공기가 통하지 않고 혼자 누우면 꽉 차는 조그만한 지하방, 물건을 둘 공간이 없어서 옷이며 이불이 짐들위로 올라가 있는 방안을 보며 무거운 밤걸음을 옮겨야 했다.

할아버님은 30년 전 양쪽 발가락 각 1개씩을 절단하게 되어 지체장애 5급 진단을 받으셨다. 그로인해 많이 걸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무언해’라고 하시며 한 풀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이 추운 날씨에도 대치동에서 도곡동까지 그 무거운 음악 테이프를 리어카에 끌고 다니시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만나 볼 때마다 늘 밝은 웃음과 재치스러운 입담을 보여주시고 행인들이 구경만하고 사지 않아도 포근한 미소와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시는 할아버님…!

그렇게 밝은 웃음을 보고도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비록 어르

신들을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잘 보살펴 드리는 못할 지라도 서로의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만은 늘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한 사회복지사는 두 눈에 눈시울을 적시며 어렵게 생활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주위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늘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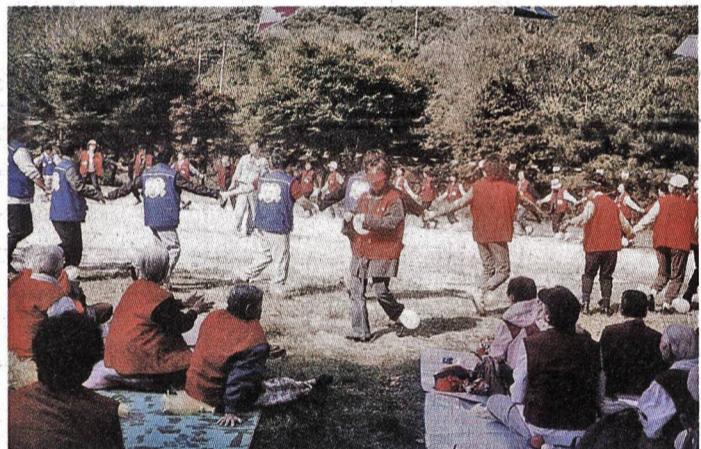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는 강남구청에서 1999년 3월 건립, 준공하고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노인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의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지는 361.50㎡(110평), 건물은 730.41㎡(221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지하1층에 경로식당, 1층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물리치료실, 2층에 주간보호센터, 운동치료실, 목욕실, 3층에 사회교육실, 4층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중풍, 뇌출증, 경증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심신동작훈련 등 심신기능회복 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급식, 목욕, 이미용등의 위생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나들이 행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알선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복지사업으로는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사회교육프로그램, 이·미용서비스, 헌방진료, 수족침서비스, 글램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재가복지사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으로 방문물리치료, 밀반찬 배달 서비스, 도시락배달사업을 실시하여 생활편의 증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활동분야

- 노령봉사 : 무료급식, 밀반찬지원사업, 식사배달사업, 주간보호소 프로그램보조
- 전문봉사 : 양·한방 무료진료, 수족침진료, 사회교육지도, 무료 이·미용
- 기타 : 사무보조, 행사보조 등

◇ 참여방법

- 대상 : 봉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 시기 : 월1회/ 주1회 이상(원하는 분야와 시간에 봉사가 가능함)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 참여내용

- 일반후원 : 특별사업과 운영비로 지원
- 결연후원 : 무의탁노인과 1:1결연하여 정기적으로 일정액 지원
- 물품후원 : 가전제품, 사무용품, 침구류 등 물품지원

◇ 참여방법

- 정기후원 : 물품이나 후원금은 정기적으로 후원, 후원금은 월 1,000원 이상 후원
- 특별후원 : 비정기적으로 형편에 따라 후원
-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22-138021-13-2002
- 예금주 :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
- 지로번호 : 지로번호 6953675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60-3
02)564-9294, 전송 : 02)558-8772

인터뷰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 조영표 관장

▶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어 종교의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의 활동에 대해 긴급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지난 1999년 3월부터 강남구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며, 주요한 사업은 노인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재가복지사업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속에서 치매, 중풍 등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락한 보호와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 치매, 중풍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과 상담해 보면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심지어는 치매 어르신으로 인해 가족해체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러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또한 시설입소를 예방하며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에서 어르신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령자취업알선사업은 많은 노인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50대 퇴직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센터를 찾는 분들을 보면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많이 찾고 있으며,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또는 건강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무의탁 독거어르신의 경우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복지센터에서는 매일매일 도시락 배달, 주2회 밀반찬 배달을 하고 있으며, 지역내 자

조영표 관장

▶ 우리 복지센터로 인해 전국의 많은 복지시설에 ‘불교 총지종’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임여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인사(人事)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일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품성, 인격, 태

도, 능력 등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환경과 준비되지 않은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적정한 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뜻있는 사람들과 이러한 교육 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복지자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조계종 등 타 종단에서는 사회복지활동에 종단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종단과 비교하여 총지종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복지센터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150여명이며, 1일 평균 1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규모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자원봉사자 빨간줄이나 활동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면 우리 총지종의 교도들도 타 종교 신도들이 하는 것처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방 어느 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교도들이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내 각종 단체나 기업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조직적인 활동과 결연후원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자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내 각 종 단체나 기업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조직적인 활동과 결연후원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자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내 각 종 단체나 기업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조직적인 활동과 결연후원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자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총지종 신임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크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